

지역 소식통

대중교통 어울림 센터  
2호점 조성 완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8일 시청오거리 버스 정류장 내 대중교통 어울림 센터(이하 '어울림 센터') 2호점을 조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울림 센터는 도로변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의 특성상 매연과 미세 먼지, 폭염, 한파에 노출되어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3월 전통시장(축협 앞)에 도내 최초로 조성한데 이어 이번 2호점을 설치했다.

어울림 센터 내부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BIT)와 냉·난방기, TV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 시민과 운수종사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폐건전지·종이팩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완주군이 폐건전지, 종이팩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2달간 '폐건전지, 종이팩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아연,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오염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면 유용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집중 수거 기간 중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는 가정 내의 폐건전지를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고, 종이팩은 내용물을 깨끗이 헹구낸 후 말려서 일반 종이와 구분해 종이팩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또한,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화장지로 교환받을 수 있다. 교환 기준은 폐건전지 7개당 통화장지 1개, 종이팩당 통화장지 1개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청사 '맨발 걷기' 명소 인기

### 운곡지구 입주민·직원 등 다수 찾아... 주민 공동체도 형성

완주군청사와 모이미래도센트럴시티 1차를 잇는 산책로가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군청사 산책로는 지난해 5월 용진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군민의 날이 열리면서 만들어졌다.

당시, 유 군수는 군민의 날을 찾는 주민들이 행사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을 지시하면서 조성됐다.

이후 운곡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완주군청사 산책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쉼터가 됐다.

산책로를 찾은 주민들이 직접 풀을 베고, 나뭇가지와 돌을 치우며 직접 길을 다져 환타길을 조성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맨발사랑' 모임을 발족하기도 했다.

산책로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실제, 산책로에서는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군청사 산책로는 테니스장, 용진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군의회 뒤편에서 오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의회 뒤편과 용진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을 잇는 길만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점점 넓혀졌다.

행정에서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해 길을 보강했다. 또한, 3곳의 세족시설과 운풍기구, 앉아서 쉴 수 있는 나무 기둥, 해충기피제도 설치했다. 산책로 중간에는 지압 자갈길도 깔았다. 군은 추후 조명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청사 산책로가 맨발 걷기 명소로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완주군청과 인근 직장인들도 다수 찾고 있다.

주말에는 전주에서 찾아온 이들이 있을 정도다. 주차장 시설도 완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들이객이 모이고 있다.

손자들을 산책로를 자주 찾는다며 한 운곡지구 주민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유대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요즘은 아이들이 땅을 직접 밟을 기회가 없는데 이곳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접하고, 뛰노는 숲속 놀이터"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청사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행사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청사와 모이미래도센트럴시티1차를 잇는 산책로가 '맨발 걷기'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김제시민운동장 호수 주변 데크에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이 빛꽃과 어울려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빛꽃 만개' 김제시민운동장 야간경관 호응

### 꽃빛드리 축제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이후 발길 이어져

빛꽃이 만개한 김제시민운동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달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2024 김제 꽃빛드리 축제에 설치했던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이후 시민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제호수 주변 데크에 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이 빛꽃과 어울려 화사

한 분위기에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장 공원이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운동장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산책의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모든 계절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23년산 정부보급종 침지소독 실천 당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본격적인 벼농사철을 앞두고 벼씨 종자소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종자소독으로 종자전염병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벼 키다리병은 대표적인 종자전염성 병해로 병에 걸린 모종을 이앙할 경우 분담후기까지 생육에 영향을 주어 쌀품질과 수량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2023년도에는 7~8월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따라 벼씨로 전염되는 벼이삭선충, 깨씨무늬병, 도열병이 많았던 해로 자가체종 및 자율교환 종자 사용자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2023년산 신동진 벼 정부보급종자는 미소독종자와 소독종자 두종류로 공급되는데 소독종자는 신동진벼 종자용 소독종자라고 붉은글씨로 표시되어 있다"며 "소독약제가 분의처리된 상태이므로 별도로 침지소독을 꼭 실시해야하고, 미소독 종자는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소독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자소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540-452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행복 담아가세요" ...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개최

### 13~14일 도립미술관 잔디마당

완주군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잔디마당에서 제2회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연다.

지난해 '웰빙'이라는 소재로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웰니스 축제는 올해도 '웰빙, 행복, 건강'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건강의 길을 지나, 행복의 마을을 둘러, 치유의 숲으로'다.

기획프로그램, 건강의 길, 행복의 마을, 봄날의 가드닝, 치유의 숲, 가공식품/생생 농산물로 행사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자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기획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주목할 것은 박동창 맨발명사와 함께하는 모

악산 맨발등반이다. 박동창 명사는 '맨발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로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맡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맨발등반으로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피크닉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소나무숲 산책길에서 진행될 '모악산 숲코너'은 숲체험 강사와 함께하는 숲놀이, 해먹 체험이 가능하고, 즉석 사진 촬영으로 소중한 추억도 남길 수 있다. 피크닉에서 빠질 수 없는 샌드위치와 음료도 제공한다.

매년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빛꽃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구이저수지 들레길 걷기 프로그램도 빠질 수 없다.

솔테마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람과 단 팔발효빵 체험, 모악산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점심식사까지 이어지는 들레길 걷기도 힐링의 포인트다.

축제 기간 모악산공원 축구장에서는 열기구가 떠오른다. 봄바람에 두둥실 날아오르는 열기구에 탑승하면 모악산부터 구이저수지까지 일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안덕마을 건강힐링체험마을'도 축제 기간 즐길 수 있다. 안덕마을 토속한증막과 한의사의 진료로 면역숙증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 행사장에서는 50여 개의 부스를 만날 수 있다.

미니꽃다발, 다육식물, 불꽃·수경화분 등으로 식물을 접하고, 건강상단, 캐리커처, 전기물레, 수제비누 만들기, 컬러링 체험, 커피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먹거리도 푸짐하다. 제과, 젤라또, 떡, 튀김, 닭꼬치, 차(茶), 봉어빵, 발효음료, 딸기잼, 딸기, 두릅, 참송이, 오란다 등 다양한 먹거리를 더욱 즐겁게 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봄 축제 부스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봄 축제'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부스는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존,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새활용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적인 공간인 놀이존에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부스다.

특히 쓰레기로 재활용하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부스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운영자는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참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kys0104@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